

事件의 神學

— 본문 : 고후 11 : 23—33 —

安 炳 茂

〈事件〉이란 말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겉으로 보면 상당히 비극적인 사건이 많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비극적인 사건을 통해서 활동하신다. 최근에 나는 이런 관점에서 성서를 보기 시작했다. 아직 완전한 체계를 이루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그 윤곽만이라도 말하려고 한다.

성서를 연구함에 있어 특별히 주목할 것이 하나 있다. 그것은 역사적 예수와 바울과의 관계인데, 놀라운게도 바울은 歷史的 예수에 대하여 거의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상식적으로 생각한다면 바울은 자기가 존경하고 몸 바쳐 일하는 주님의 행적을 자세히 말해주고, 그의 말씀을 반복해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어야 할 것 같은데, 바울은 주님의 비유 한가지도 들려주지 않고, 예수의 중요한 말씀은 거의 빠뜨리고 전해주지 않는다. 더욱 놀라운 것은 “예수를

더 이상 ‘카타 살카’(κατα σαρξα) 즉 ‘육체로’ 알려고 하지 않는다”는 말이다. 이 말씀에 대한 해석은 분분하지만, 다른 말로 바꾸면 “역사적 예수를 알려고 하지 않는다”는 말이고, 반면 “그리스도 즉 부활한 그리스도를 알려고 하는 데 초점이 있다”는 말로 들린다. 하여튼 바울 서신 전체가, 아니 사도행전 까지도 예수의 말씀에는 거의 관심이 없다는 사실을 나는 발견하였다. 여기에 주님의 말씀이라고 나온 것은 교회의 케리그마지 역사적 예수의 말씀은 아니다.

한편 바울이 분명히 언급한게 하나 있다. 그것은 “나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예수의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전하지 않겠다”는 말이다. 이것은 무서운 宣言이다. 십자가는 事件이다. 말씀이기 전에 事件이다. 이 말은 “十字架에 예수가 달려 죽었다는 十字架의 事件 외에는 다른 것엔 나는 흥미가 없다. 내

초점은 十字架의 事件이다. 이것을 나는 전하기 위해서 그의 증인이 된 것이다”라는 뜻이다. 이 단호한 선언에서 우리는 바울이 왜 예수와 말씀보다도 그의 十字架의 事件에 관심을 기울였는가 하는 문제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분명히 예수와 十字架의 죽음은 事件이다. 歷史上에 일어난 事件이다. 초대교회는 이 사건에 총 집중하였다.

학자들은 初代敎會의 설교의 原형을 찾으려고 많은 노력을 하였다.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그 원형의 잔재를 발견하게 된다. 베드로의 설교만도 여섯번이나 나와 있는데 그 초점은 “우리는 너희들이 나무에 달아 죽인 그 예수에 대한 증인이다”라는 것이다. 사도행전 10장에 전형적인 설교가 있다.

“우리는 예수께서 유대지방과 예루살렘에서 행하신 모든 일에 대한 증인입니다. 사람들이 그를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그를 사흘 만에 다시 살리시고 나타나게 하셨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미리 택하신 증인인 우리에게만 나타나셨습니다. 그가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우리는 그와 함께 먹기도하고 마시기도 했습니다”(행 10:39-41). 예수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는 것은 분명히

사건인데 그들은 바로 이 사건의 증인이라는 말이다. 예수의 말씀을 제증시켜서 예수의 理想과 말씀을 퍼뜨려 가지고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겠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십자가에 不法的으로 죽었다는 이 사건의 증인이 되겠다는 뜻이다.

바울 書信도 이것으로 일관되어 있다. 지금까지 나는 바울의 생애를 도의시키고 바울서신들을 읽었는데, 이는 잘못이었다. 말씀은 그 狀況 속에서 읽어야 한다. 바울의 생애 그 안에서 그 편지를 읽어야 한다. 후가 바울 서신은 제외하며라도, 옥중에서 쓴 편지에도 자기가 왜 옥중에 들어갔는지 일언반구도 없다는 사실에 나는 관심을 갖게 되었다. 결국 그가 언론의 통제를 받았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우리는 이것을 전제로 바울의 글을 읽어야 한다.

사도행전에 바울의 생애가 나와 있지만, 이것은 상당히 전설적인 요소가 많이 섞여 있어서 문제가 많다. 그런데 고린도후서 11장23:27에는 숫자까지 나열하면서 바울 자신이 자기의 생애를 전해 준 것이 있다.

“나는 감옥에도 더 많이 갇혔고 매는 수 없이 맞았으며 여러번 죽을 뻔했습니다. 유대인들로부터

터는 사실에서 하나를 감한 때를 다섯 번이나 맞았고 몽둥이로 맞은 것이 세번이요 물로 맞은 것이 한 번이요……”

고린도후서를 쓸 때를 보통 주후 56년경으로 잡으며, 빌립보서는 60년경으로 잡는다. 그런데 바울이 56년까지 단 하루 감옥에 들어갔다 나왔다는 말 외에는 전해져 있지 않다. 로마인에게 태장으로 맞은 것만도 세번이나 되는데(태장은 로마가 죄인을 때리는 형벌이다) 사도행전에는 한번 밖에 나와 있지 않다. 그 외에는 어떻게 됐는지 알 수 없다. 맨 처음 빌립보에서 당한 일이 있는데 그것은 유대사람이 소동을 일으킨 것으로 빼었고 치안 방해죄로 고소 당했다(행 16:20). 어떤 근거가 있었기에 치안방해죄로 고발했을 것이다(宗敎罪로는 당시 로마가 상대를 안할거니까). 그 다음엔 메살로니가에서 또 소동이 났었다. 유대사람들이 로마 관원에게 “그는 온 세상을 소란케하고 가이사의 법을 어긴자”라고 소란죄로 고소하였다. 그 다음 또 수난을 겪었는데, 여기서도 유대인들이 “이 사람이 법을 어기고……사람들을 선동한다”고 고소하였다(행 18:13).

그 다음 마지막으로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체포되었다. 마지막 체포

였다. 이것은 고린도후서에 밖에 나오지 않는, 바로 오늘 읽은 귀절이다.

빌립보서에는 왜 감옥에 들어갔는지 일언반구도 이야기가 없다. 그러나 사도행전 21장이하에 그 이야기가 있는데, 이상하게도 예수님의 이야기와 비슷한 데가 있다. 예루살렘에 마지막으로 올라갔다. 예루살렘에 올라가기 전에 에베소에 들려, 거기 장소들과 마지막으로 만나, 서로 끌어 안고 우는 장면이 나온다. “나는 이제 더 만나지 못할거요”하고 울었다. 장로들은 위험한 길이니까 “가지 마십시오”하고 붙잡았다. 꼭 예수의 경우와 비슷하다. 바울은 “성령이 나를 예루살렘으로 가라고 하시니 안 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왜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했는지는 알 수 없으나 그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 거기에는 바울을 죽이려는 유대 결사단이 이미 조직돼 있었다. 그가 성전으로 올라가니 그 무리들이 바울을 붙잡아 죽이려는 데 소동이 벌어졌다. 이 소요를 진압하려고 가이사라 빌립보에 있는 로마 주둔군이 예루살렘으로 올라 왔다. 유대인들은 바울을 죽이려고 이런 저런 告訴를 하였으나 그 증언이 서로 맞지 않았다. 예수가 당하는 것과 거의 꼭 마찬가지였다. 로마 병

정들은 이 유대인들의 증오심에서 바울을 保護하고 구출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그런데 여기에 묘한 말 하나가 삽입되어 있다. 천부장이 바울을 이끌고 가이사라 빌립보로 가는 도중 “당신이 헬라 말을 할 줄 압니까?” 하는 질문을 하였다. 헬라 말을 잘 안다고 하니까 “그렇다면 당신이 얼마 전에 반란을 일으키고 나서 폭도 40명을 이끌고 광야로 갔던 그 애굽 사람이 아니오?” 하는 난해 없는 질문을 하였다. 이것은 뭔가 중요한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말이다. 여기 暴徒란 말은 “스카리오”를 말한다. “암살하는 자객, 결사대”를 뜻한다. 이 “스카리오의 주동자가 아닌가”하고 묻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전후 문맥상 이상하다. 요세푸스의 기록에 보면, 당시 광야에는 유대 스카리오들이 3만여명이 모였는데, 그 주동자의 口號는 “여기 오면 내 그대들에게 평화의 상징을 보여줄 것이다”라는 것이었다. 이 3만여명은 “예루살렘을 더러운 자들의 손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웨치면서 감탄산으로 진격해 갔다. 그때 총독 휘닉스가 군대를 동원해서 그들을 격퇴했는데, 그 主動者는 도망해서 애굽쪽으로 달아났다는 것이다. 그런데 바울더러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

요?”하고 물었다는 사실은 그 때 후에 굉장한 歷史的인 事實이 은폐되어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예수의 경우에 있어서도 왜 그가 죽어야만 했는지 아직도 수수께끼로 남아 있다. 더군다나 가룟 유다의 역할 같은 것은 마치 오페라에서 갑짜기 나타나서 “편지요!” 한마디 하고 없어지는 사람과 같다. 여기 바울의 경우도 보면, 로마 사람들이 관여할 필요가 없는 事件이었다. 그들은 유대인들의 종교문제는 일체 간섭하지 않았다. 단지 反 로마運動만 규제하고 나머지는 모두 다 유대인들에게 자유로 넘겨졌다.

앞에서 잠깐 인용한 바와 같이 바울은 많은 고생을 하고 메도 많이 맞았다. 그는 “나를 더 이상 괴롭히지 마시오. 내 몸에 그리스도의 낙인이 찍혀있습니다”라는 고백을 하였다. 이것은 언어 맞아서 상처가 생긴 것을 말한다. 즉 맞은 자리다. 말하자면 바울의 생애 전체는 (事件)으로 집결되어 있었다. 만약 그가 설교를 해도 아무 문제도 일으키지 않는, 純福音 계통의 그런 설교를 했다면 그렇게 일을 당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하여튼 그는 무슨 못된 說教를 했는지, 밤낮 언어 맞고, 밤낮 쫓기고 수난을 당해야만 했다. 즉 사건, 사건, 사

년이 그의 생애를 접철했다. 그러나 그는 그 속에서도 굽히지 않고 전할 것을 다 전했다.

이렇게 사건으로 생애를 접철하던 바울이 결국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 빌립보서에 보면 그는 이미 죽음을 각오한 것을 알 수 있다. “내가 죽는다”하면서 그는 새 사실을 하나 발견하였다. 그것은 바로 〈사건〉이었다. “내가 그동안 계속 사건을 당했다. 언어, 맞고 억울하게 당하고, 죽음에 처하게 되었다. 그러나 그전 그저 지나가는 일이고 역학적인 일이다. 오직 내가 믿는 것은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이다. 나는 이 예수의 十字架만을 전하겠다. 이것만이 내가 전할 中心이다.” 여기서 그는 새 사실을 말한다. “내가 당한 일 자체, 내가 옥중에 들어갔다는 사건 자체를 하나님은 복음전과 아니 복음의 前進으로 살고 있다”는 사실이다. 사건 자체가 하나님의 宣敎(Missio Dei)를 전제하고 있다. 사건! “반드시 말만이 아니라 내가 당하는 사건, 내게 이뤄지는 사건 자체를 하나님이 쓰신다”는 확신이다. 반드시 승리할 때만이 아니라, 반드시 영광스런 때만이 아니라, 행복하게 될 때만이 아니라, 어떤 성공을 거둘 때만이 아니라, 쓰러질 때, 언어 맞고, 피가

터지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고, 敗北하고 불행하게 되는 그 속에서 하나님은 그의 편이 되어 주시고, 그 사건들을 통해서, 자기도 모르는 순간에 하나님은 그의 일을 하진다는 확신을 그는 갖게 되었다. 이 새 사실을 그는 발견하였다. 그렇다. 〈사건〉이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도 사건이요, 바울 생애 전체도 사건의 연속이었다. 부활도 사건이요, 오순절도 사건이었다. 사건의 접철을 통해서 이루어진 기독교사는 앞으로도 사건을 통해서 이어져갈 것이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은 이 사건들을 통해서 그의 일을 이루어 나갈 것이다. 여기에는 성서 안이나? 성서 밖이나? 교회 안이나? 교회 밖이나? 하는 구별이 없다. 오늘날까지 하나님은 바로 이 역사적인 사건들을 통해서 그의 일을 하고 계신다. 우리는 그의 증인이다.

성서는 이 事件들의 기록으로 가득차 있다. 도세의 이야기, 엘리야의 이야기, 엑소더스의 이야기, 그리고 요한복음 4장의 이야기, 히브라서 13장의 이야기 등등 일일이 다 열거할 수 없다.

그러면 이 〈사건〉이란 말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는 문제가 남는다. 보통 역사가들은 사회학적으로, 혹은 역학적으로 사건들을 해석한다.

이건 이래서 좋고 저건 저래서 나쁘고, ……윤리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타락했으니까 그들은 망했고, 이들은 특별히 이렇게 있었으니까 이겼고……하는 식으로 역사적인 사건들을 해석한다. 그러나 성서는 그렇지 않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승리할 때 뿐만 아니라 망할 때에도, 하나님은 그 망한다는 사건을 통해서 그의 일을 하신다는 사실을 발견한, 놀라운 눈을 가진 豫言者들이 있었다. 구원을 선포하는 예언자가 있음과 동시에, 반대로 불행과 멸망을 예언하는 예언자도 있었다. “지면 내편이 아니고 이기면 내편이다”하는 식의 思考가 아니고 “사건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긴다”는 굉장히 고답적인 思考를 그들은 갖고 있었다. 예수의 사건에 대한 해석도 여러가지다. 그것만 내버려두면 사건이 意味化가 되지 않는다. 단순히 보면 약한 자가 강한 자에게 잡혀서 죽은 것이 십자가의 일이라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신 것이고, 또한 죽은자 가운데서 살려 일으키셨다고 해석할 때 그 의미는 아주 달라진다. 십자가의 죽음에 대한 해석이 여러가지가 있으나 히브리 13장을 나는 즐겨 인용한다. 레위기서에 의하면 유대인들이 죄

를 대속할 때 사용한 方法이 두가지가 있었다. 그 하나는 사람들이 자은 죄를 속하기 위하여 순결한 짐승의 피를 대신 바치는 儀式이었다. 피는 제단에 바치고 그 가죽, 뿔은 城門 밖에 버렸다. 또 하나는 흠 없는 양을 끌어다가 제물로 바친 다음, 피를 뿌려서 제물의 죄가 그 피에 흡수됐다고 생각하고 그 피를 그 양에게 발라준다. 이는 우리 죄를 “네가 다 짊어져라”하는 뜻이다. 그리고 그 양을 광야로 끌고 나가 버린다. 그러면 이 양은 광야를 헤메다 죽게 된다. 잔인하다면 참 잔인한 일이다. 우리 주님도 사람들이 사는 世界가 아닌, 저 성문 밖으로 쫓겨나서 거기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앞에서 말한 제물로 드려진 양의 똥과 살과 가죽처럼 城 밖에 끌려나가 거기서 죽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영문 밖으로 나가자. 거기 그리스도가 계신다.

사건의 있으면 그 사건에 대한 해석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우리 앞에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우리는 그것을 해석하고 증언할 의무를 갖고 있다. 그렇다면 그 사건이란 뭐냐? 하고 이 사건을 깊이 생각해야 한다. 그런데 보편적으로 우리는 사건을 平面的으로만 본다. 사회학적 관측, 정치적 관측, 경제적 관측, 생물학적 관측 등등, 이런 관

측들은 모두 다 평면적인 관측이다. 우리가 관측한다는 것, 즉 客觀化해서 관측하는 것은 모두 다 평면적인 관측이다. 이런 평면적인 관점에서 승패를 보기 때문에 이기는냐? 지는냐? 하는 문제를 크게 생각하고, 이기면 축제를 올리고, 지면 끝장이 난줄 알고, 절망하게 된다. 처음에는 의분을 가지고 야단스럽게 시작을 했다자도, 평면상에서 볼때 다른 可能性이 없으면 맥이 빠지고 절망한다. 일반이 그런 것은 말한 것도 없고, 소위 크리스찬들도 그런 실정이다. 그러나 성서가 말하는 事件이란 그런 것이 아니다. 평면적인 관점에서 倂連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평면적인 것 속에 뚫고 들어오는 垂直的인 것 (vertical)을 말한다. 즉 평면적인 것에 수직적인 것이 뚫고 들어와서 터지는 일이 사건이라고 성서는 해석한다.

예수 자신의 죽음도 평면적인 것으로 해석해 버릴 수도 있다. 그러나 예수 자신은 “사람이 나를 죽이느냐”하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구나”하고 생각했다. 즉 하나님이 간섭해 들어오는 것으로 생각한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사건이다. 호리존탈(horizantal)한 것에 버티칼(vertical)한

것이 마주치는 거기서 스파크가 일어난다. 이것이 사건이다.

우리는 日常性 속에 사로잡혀 사는 동안에 자신도 모르게 이 기본적인 버티칼한, 수직적인 하나님의 개입을 잊어버리고 만다. 계산에 넣지 않고 산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개입해 들어온다는 사실 즉 기적을 믿어야 하겠다. 성서의 말씀대로, 세상이 倂락해도 하나님은 개입해 들어오신다. 뚫고 들어오신다. 기적은 일어난다. 계속적으로 일어난다. 이것을 믿고 宣布한 것이 그리스도교의 歷史이다. 엄밀하게 말하면, 자연과학에서도 그걸 다시 새롭게 말한다. 자연법칙이란 영원불변하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 그런 것이 아니다. 偶發的인 것이 점철되어서 연속되는 것에 불과하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어떻게 보고 증언하느냐 하는 것이 문제다.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활동하신다는 성서의 기본적인 입장에 비추어, 오늘의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봐야할 것이다. 호리존탈한데에만 머물 것이 아니라, 버티칼한 事件이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질 때 성서적인 제물에 선 크리스찬이 될 수 있을 것이다. *